

## 경제마인드로 재무장 하자

② 지역 친환경 필요할 때

## 현지 범인화 기업이 생산성도 높인다

유통업체 年 2,000억 원의 유출... 지역경제 해악

이전 지역민과 상생 협력... 미래 희망기업 만들자

지역 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역 친환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대기업 본사 이전과 기업들의 현지법인화 등이 지역 친환경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현지법인화를 요구하고, 기업들도 현지 밀착경영이 지역민들과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친환경성이 생존경쟁 논리만 적용되는 단적인 사례가 유통업체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유통업체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문제로 유난히 끄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자본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넣고 있는 것은 단일 매장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롯데마트 월드컵몰이 올초 개점한데 이어 유일의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가 롯데슈퍼에 분리 매각됨으로써 지역 유통업체가 중앙 거대화

본의 격진장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에 진출한 중앙 유통업체들이 본사가 있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출하는 지역자본은 연간 2천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유통업체들의 총 매출액은 1조4천억 원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수도권으로 유출된 셈이다.

현지법인화 되지 않은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해악은 이밖에도 소규모 길

거리 상권 봉고와 농·수·축산물 등 지역업체의 납품기회 상실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신세계는 외부자본의 현지화 성공모델로 지역 친환경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5년 현지법인으로 설립해 광주에 진출한 이후 광주신세계는 장학·사회봉사·문화예술·지역업체 육성 등 4대 지역사업에만 47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등 자본의 지역내 환원에 노력해 왔다.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도 지역 친환경의

필수적인 요소로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분야이다. 대기업들이 현지 생산공장에 본사를 광주·전남으로 이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인 금호산업이 그룹의 택지를 찾아 지난해 4월 본사를 광주에서 나주로 이전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중앙집권 경제체제 하에서 정보와 인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이지만 정보화와 지방화가 진전된 요즘에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대 경제학부 원용찬 교수는 유통업체의 예를 들며 “자본의 투자화는 지역밀착 경영의 첫단초로 지역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변성할수록 자금유출·상권붕괴·생산기반 외해가 일어나기보다 지역경제와 공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우수농산물관리 품목  
농림부, 100개로 확대

농림부는 22일 농산물 안전관리제 도입 우수농산물관리(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수를 기존 96개에서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더덕·잇꽃(홍

화)·동글레(위유)·표고버섯·피망·치커리·밤·호도·자 등 9개이며, 쌀·쌀보리·멥보리·멥주보리는 ‘보리쌀’로, 방울·완숙도마로는 ‘토마토’로, 고추와 풋고추는 ‘고추’로 각각 통합됐다. 아울러 농림부는 GAP 농산물의 수확후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산물자치유통센터(APC) 10개소를 대상으로 GAP 위생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이종태기자 jtlee@



기아차 광주공장 장애우와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광주공장 내 봉사단체인 성심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랑의 집’ 자체장애우

20여명을 초청해 공장견학행사를 가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제공

## 편법 '富대물림' 4006명 탈루 조사

## 국세청, 대출 등 증여 수단

은행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떼안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이른바 ‘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활용하는 증여 세 탈루 행위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뽑아들었다.

최근 강남권 부유층 등을 중심으로 부담부 증여가 절세의 방법으로 알려지면서 변칙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세청은 과거 부담부 증여를 받고 지난해 대출 등 빚의 상환 만기일을 맞았거나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 경과기간이 5년 이상된 수증자 중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천6명을 상대로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들 4천6명에게 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체무 상환 여부를 확인, 상환한 경우는 우선 상환자금의 출처를 증명하도록 한 뒤 증여자인 부모 등이 자식 등을 대신해 부채를 갚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탈루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의 20%를, 납부불성실은 1일 0.03%를 미납기간에 걸쳐 물리게 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증명에 불응하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상환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있지도 않은 체무를 거짓으로 끼워넣어 증여세를 적게 낸 것인지 여부를 검증한 뒤 세금을 주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 국세청, 빠르면 이번주 지방청장 인사

## 박찬옥 서울청장 25일 퇴임

정이다.

박 청장은 최근 후배들과 돌아가며 식사를 했으며 23일에는 직원들과 함께 지원해온 노인 복지시설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39년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있다.

김호업 중부지방청장도 후배들을 위해 응회할 결심을 최근 굳힌 것으

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리 를 메우기 위한 연쇄적인 인사동이 있을 예정이다.

후임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인 오대식 본청 조사국장과 권춘희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각각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후임자로는 허병의 본청 법원납세국장과 김창섭 본청 법무심사국장, 정병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건설업계 향후 10년 트렌드?

## “삶의 질과 쾌적한 환경”

##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

가 17.4%, ‘제도와 규범의 국제화’가 16.1%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향후 10년간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이 건설산업의 최고 사회·경제적 트렌드로 떠오르고, 해외건설 확대 움직임이 건설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30대 건설업체 기획담당 부서장 및 연구소, 유관기관 등 43명을 대상으로 ‘미래 건설산업 비전’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방안으로는 ‘설계·엔지니어링 능력 향상’(18.1%)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시공 위주에서 탈피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된 결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부실 건설업체 설자리 없어진다

## 재무 구조 취약 업체 등

## 2010년까지 1만개 퇴출

영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중 한 곳에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액수를 예치한 뒤 보증 가능금액 확 인서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예치 후 1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의 85% 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즉 자본금이 10억원인 경우 신용도에 따라 적자는 2억원, 많게는 5억원을 예치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난 뒤에는 예치금의 85%를 대출받을 수 있어 실제로는 15%만 예치하면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한 ‘장흥 농민회’

## 포상품으로 100만원 상당 전남 쌀 받아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최근 장흥지역 모 양계장에서 중국산 쌀을 ‘포대같이’를 통해 국내산으로 바꿔끼기 하는 현장을 적발한 장흥군 농민회에 100만원 상당의 전남쌀 20Kg 25포를 유공 포상품으로 지급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光州日報  
창사 55  
1952-2007

국립 목포대학교가  
요즘 뜬다죠?

- 전국 대학 NURI 사업 대통령상 수상(1위)
- 전남 도청 소재지 거점대학
- 서남권 개발 선도대학

입학안내 061)450-6000



국립목포대학교  
http://www.mokpo.ac.kr